

# 이젠 젓가락질 어렵지 않다

최근 어린이나 외국인 등 젓가락질이 서투른 사람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젓가락에 대한 특허 출원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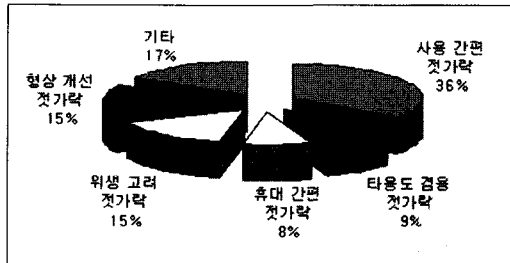
최근 특허청의 통계에 의하면 지난 10년간의 젓가락에 대한 국내 특허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총 출원건수는 1백 53건으로서 국내 출원인이 1백50건(98%)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같은 젓가락 문화권인 중국이나 일본에서의 출원은 3건(2%)에 불과하다. 또한 간단한 아이디어로 상품성을 쉽게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기업보다는 개인 발명가의 출원이 대부분이다.

기술내용별로 분석해 보면 사용 편의성을 향상시킨 젓가락이 54건, 타용도(수저 또는 포크 등) 겸용 젓가락이 14건, 휴대가 간편한 젓가락이 13건, 위생을 고려한 젓가락이 23건, 형상 또는 기능을 개선한 젓가락이 23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출원 증가는 젓가락질이 어린이 지능 발달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분석에 따라 젓가락 사용에 대한 관심이 증대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기술내용을 보면 젓가락 상단부가 연결되어 있고 엄지, 검지 및 중지를 낄 수 있게 되어 있어 간편하게 젓가락질을

하면서 사용법을 익힐 수 있는 어린이 전용젓가락, 끝을 포크처럼 만든 포크겸용 젓가락, 음식을 집는 부분이 손잡이 부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휴대가 간편한 젓가락, 음식을 집는 부분이 식탁에 닿지 않도록 중간부를 변형시킨 위생 젓가락, 음식이 잘 집어지도록 형상을 개선한 젓가락 등 다양한 형태의 젓가락이 출원되고 있다.



▲ 종류별 젓가락 출원 비중을 보면 사용의 편의성을 중시한 특허출원 수가 가장 많다.

이러한 젓가락 관련 출원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포크 문화권인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젓가락 사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 대한 출원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국내산 디지털카메라와 캠코더 일본 아성에 도전!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 등 영상 촬영장치 관련 국내 기업들은 꾸준한 기술개발과 특허출원을 통해 이 분야 최고의 기술 강국인 일본의 아성에 도전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영상 촬영장치에 관한 특허출원에 있어 국내업체의 비율이 '99년 65.2%에서 2003년 83.2%까지 높아진 반면 일본 기업의 출원 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메라, 캠코더 등 영상 촬영 장치 시장은 세대별 보급률 포화로 성숙기에 접어들은 것으로 보여졌으나, 최근 컴퓨터와 직접 연결하여 자유롭게 편집, 저장이 가능한 디지털 카메라, DVD 캠코더 등 디지털 제품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고 있다.

그러나 소니, 올림푸스, JVC 와 같은 일본업체들이 다양한 제품군과 브랜드 인지도를 앞세워 국내 시장을 선점하고 있어, 국내업체들은 이러한 시장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기술개발과 세계 일류 제품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최근 국내업체들의 영상 촬영장치에 관한 특허출원이 꾸준히 늘고 있다.

현재 영상 촬영장치 시장은 제품의 트렌드가 빠르게 변하고 소비자의 취향도 고급제품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 고화질·다기능·대용량의 고급형 첨단제품 개발을 위한 더욱 많은 연구개발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플래시 메모리 특허출원 큰 폭 증가

디지털카메라, 휴대폰, 개인용 휴대단말기 등 디지털 가전제품과 모바일 전자기기의 보급 확대로 핵심 부품인 플래시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기술개발과 특허출원이 크게 늘고 있다.

플래시 메모리란 정상시에는 데이터를 읽어내고, 필요에 따라서는 쓸 수도 있도록한 반도체 소자로서 내부 데이터를 카메라의 플래시와 같이 단일 명령에 의해 순간적으로 지울 수 있어 '플래시(flash)'라는 명칭을 갖게 되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및 세계반도체무역통계기구에 의하면 올해 세계 반도체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19% 증가한 1천9백18억불이며, 그중 플래시 메모리 시장은 40% 이상 성장한 1백60억불로, 올 하반기에는 사상 최대 규모의 플래시 메모리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허출원 건수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03년 플래시 메모리 특허출원은 전년대비 93.3% 증가하였으며 특히, 내국인의 출원증가율은 117%로서 외국인 출원증가율 25%를 크게 앞섰다.

국내업체로는 하이닉스 반도체, 삼성전자, 동부아남 3개사가 전체 출원의 73%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업체로는 데이터 저장형 플래시 메모리를 생산하는 도시바의 출원이 70% 증가하였다.

한편, 앞으로 수년 후 현재의 플래시 메모리 기술로는 더 이상 칩의 소형화가 곤란하기 때문에 관련업체들은 대체 기술개발의 일환으로 다양한 신기술 제품을 시험하고 있다. 국내 업체들도 소노스(SONOS) 메모리 소자 기술과 페로일렉트릭 메모리(FerAM), 자기메모리(MRAM) 등의 주요 대체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개발된 신기술의 특허권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디자인 명함도 특허 받는다

다양하고 개성있는 명함의 의장 특허출원이 크게 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1960년부터 2001년까지 출원된 명함 관련 의장 특허는 91건에 불과했으나 '02년 3백41건으로 급증한 이후 지난해까지 2백50건이 출원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그래픽 디자인 기술이 크게 발전하면서 종전의 네모반듯한 흰색 명함을 탈피, 문자나 숫자를 도형화하거나 입체화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또 최근 경기 불황 속에서 명함에 개성과 미적 효과를 더해 소비자 등의 관심을 더 끌 수 있어 기업이나 자영업체 등의 홍보 수단으로 큰 인기를 모으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지면안내 ■
- 3 사이버 국제특허아카데미, 무료 교육 콘텐츠 제공
  - 4 발명꿈나무 양성의 요람, '지식재산교육센터' 신속
  - 5 쉽게 따라야 하는 뱃살 빼기
  - 6 건강에 좋은 '반신욕' 상품 불티나게 팔린다
  - 7 질레트의 안전 면도기
  - 9 인물 FOCUS·(주)늘부 김순진 대표
  - 10 현장 리포트·천안중학교 발명교실
  - 11 달라진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 관람하기
  - 14 산업재산권 전문심판기관, 특허심판원

# 물 없이 염색하는 시대가 온다

최근 환경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또한 폐수배출에 대한 규제가 국내외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염색업계에서는 폐수처리 비용과 에너지 비용의 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염색폐수가 보다 적게 발생하는 염색기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머지않은 장래에는 물을 사용하지 않고 염색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액류 염색기와 관련된 국내 특허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98년부터 2003년까지 출원된 총 29건 중 외국인 출원은 4건에 불과하고 내국인 출원이 2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액류 염색기와 관련된 국내기술개발이 활발히 이

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술내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액류 염색기의 롤러위치 및 액류관 형태에 관련된 것이 13건, 액류 염색기에 자동온도 조절장치 등이 부착된 것이 5건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오염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에 대비하여 국내염색기 제조업체는 물 대신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초임계유체염색기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염색기 개발이 성공되어 실용화 된다면 폐수배출이 전혀 없는 획기적인 환경 친화적 염색이 가능한 시대가 도래될 것으로 예상된다.